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|
|  금융위원회 | <h1>보도 설명 자료</h1> | | |  대한민국 대한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|
| | 보도 | 배포 후 즉시 | 배포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책 임 자 |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장 최 치 연(02-2100-1685) | 담 당 자 | 안기빈 사무관(02-2100-1687) 남진호 사무관(02-2100-1686) |
| |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장 정 여 진(044-215-8580) | | 원종혁 사무관(044-215-8583) |

제 목 :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.

(조선일보 2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- 조선일보는 2.23일 「청년희망적금이라더니 ... 사회 초년생은 가입 못한다」 제하 기사에서,
 - “2020년 소득 없이 작년엔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(중략) ‘3월 4일’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면서 (중략) 가입이 불가능해졌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

- ‘20년에 소득이 없었고 ‘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‘21년 소득이 확정(7~8월경)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’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에 있습니다.
-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-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
-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| | | | | |
|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 |  한국자산 |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|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 |  합병관리청 콜센터 |
|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